



복잡한 지도와 책은 안녕~

스마트 앱에 휴가정보 다있네

#1 LPG차량 운전자 나남주(29)씨는 지난 주말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주유램프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둘러봐도 LPG 가스충전소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스마트폰에 설치해둔 'E1 오렌지카드' 앱이 생각났다. 나씨는 E1 앱을 이용해 2km정도 떨어진 LPG 가스충전소를 찾아 가스를 충전한 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2 이용수(33)씨는 여름 휴가철이 면 편지가 걱정이다. 가까운 곳은 대부분 가봤고, 유명한 곳은 사람들도 북적거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 여름은 걱정을 끝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 정보를 활용해 아내와 함께 떠날 여행지를 벌써 결정하기 때문이다. 음식, 축제, 레포츠 정보까지 다른 고민도 날려버렸다.

스마트폰 이용자 1500만 시대, 본격 휴가철을 맞아 '스마트'(smart)한 맞춤형 여행 애플리케이션(이하 앱)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를 어플 추천 여행지에서부터 음식점, 숙박 등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 편안하고 즐거운 휴가를 만들어 줄 앱들을 알아보자.

◇어디로 떠날까? 여행정보 앱=가장 눈에 띄는 앱은 한국관광공사가 개발한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이다. 이 앱은 약 3만 건에 이르는 다양한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 지도 위에서 관광지, 음식, 교통, 숙박 등의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고 여행정보책자 1권을 통째로 담은 '365일 여행' 콘텐츠도 제공한다. 특히 트위터 전송 기능을 통해 관광지 정보 공유도 가능하다.

SK텔레콤이 추천하는 '떠나볼까' 앱도 있다. 이 앱은 10년 이상의 취재 경험을 보유한 전문 여행 잡지, 여행

작가가 발로 뛰어 활동한 감성적인 사진과 에세이를 담았다는 것이다. 국내 베스트 여행지 100선을 선정하고, 커뮤니티, 가족여행, 혼자여행 등 목적에 맞게 분류해 정보를 제공한다. 또 T맵과 연계해 내 주변의 관광지, 맛집, 숙소, 교통, 편의시설 등을 검색할 수 있고, 가고 싶은 여행지까지 실시간으로 빠른 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LGU+가 OZ 스토어를 무료로 제공하는 '국내 여행 총정리' 앱도 전국 5만 6000개의 여행정보를 담고 있다. 자자체 인증이나 도서에 실린 횟수, TV에 소

지에서 귀가에 올리는 모기소리를 듣기 싫다면 '무료 애티모기' 앱을 이용해 보자. 앱을 켜두면 스마트폰 주변으로 모기들이 물려드는 것을 방지한다. 스마트폰 반경 2m까지 효과가 있다.

휴가 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면 막막하기만 하다. '긴급, 교통사고 대처' 앱은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처리부터 사고처리까지 단계별로 처리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험사 연락처 리스트에서부터 경찰서와 유형별 사고 처리 절차를 안내해주며 사용자 주변의 병원과 정비소까지 확인이

한국관광공·SKT·LGU+, 4만여 정보 총망라
주변 관광지·맛집·숙소·교통 등 실시간 안내
커플·가족 등 여행 목적따라 맞춤형 정보 제공

개된 횟수, 세계적으로 인정된 여행지, 사용자 평점 등의 많은 인증정보를 총합해 객관적인 여행지를 추천해 준다.

독특한 여행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라면 '캠핑인' 앱을 추천한다. 캠핑 마니아들을 위해 전국 430여 개의 캠핑장 정보가 등록돼 있다. 지역별, 명칭별로 캠핑장을 검색할 수 있고 인근 캠핑장도 검색할 수 있어 편리하다. 캠핑장 사진은 물론 입장권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항공권을 알아보는 사람들이라면 '투어자카' 앱이 있다. 국내 항공권 판매여행사들을 업선하여, 동일기준의 항공권 가격비교 및 실시간 좌석·상세스케줄을 볼 수 있고, 예약도 가능하다. 국내 15개 공항의 여객기 탑승정보 및 도착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알아두면 편리한 앱=여름 무더위와 함께 최고의 불청객은 모기다. 피서 가능하다.

LPG차량 이용자라면 E1에서 출시한 'E1 오렌지카드' 앱을 활용하면 LPG 가스충전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E1 뿐만 아니라 타 브랜드의 충전소까지 반경 10km내의 충전소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휴 가맹점과 주변의 지역명소까지 검색이 가능하다.

손전등이나 랜턴을 미쳐 준비하지 못했다면 '컬러 라이트' 앱을 사용해보자. 액정을 이용해 밝은 빛을 내주는 앱이다. 카메라 라이트와 스크린 라이트 등 다양 한 메뉴로 구성돼 있어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음식 **엘리시아**의 명성 그대로!
해물샤브샤브에서
이어갑니다



영업시간 오전 11:30~오후 10:00
예약문의 ☎ 062-513-4000

네비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843번지

돌잔치, 칠순·회갑연,
가족모임, 세미나, 사은회
단체 연회장 10~80석 연회장 완비
영상(프로젝트), 음향, 노래방기기 무료사용

신선한 해물만을 사용하여
생생한 바다내음을 전해 드립니다



엘리시아 **해물샤브샤브**

해물샤브샤브 용봉점 ☎ 062-513-4000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elysiaaa>

엘리시아 **샤브샤브**
체인점 모집!!

• 모집지역 : 광주, 순천, 여수, 광양, 목포, 전주, 군산, 익산
• 모집조건 : 각 지역에서 100평 이상 건물 임대 가능한 자

(세정아울렛 3층)

상무엘리시아 ☎ 062-385-3000 직통상담 010-3645-3303

서울프로모션 플랜 애니메이션 공모

광주 '아이스크림팀' 우수 기술상



〈아이스크림팀〉

서울프로모션 플랜 2011(SPP2011) 공모전에서 광주 아이스크림(EYE-SCREAM·공동대표 김지윤·최병선)의 3D애니메이션 '도토리탐정 아키'가 우수기술상을 수상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SPP 2011에는 국내외 108개 작품이 1차 심사를 거쳐 20개 작품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도토리탐정 아키'는 기술부문 최우수작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SPP는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만화·애니메이션 전문마켓으로 전 세계 공모를 통해 글로벌 유력 바이어를 조성하여 5개 부문(기획, 창의력, 기술, 작품, 심사

위원 특별상)에 대해 시상한다. 각 부문별 수상작에는 1만 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수상은 외국 제작사 및 방송사 관계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그 의미가 크다. 특히 '도토리탐정 아키'는 숲 속의 도토리들을 생동감 있고 위트 있게 연출해 환경보호와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 지난 4월 캐나다 제작사로부터 공동제작 제안을 받기도 했다.

제작사 아이스크림은 광주시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지원하는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광주콘텐츠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하여 현재는 TV

5억규모 앱 경진대회 연다

KT-중기청 참가자 모집

KT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총상금 5억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경진대회인 '2011 에코노비에션 서드 페어(2011 Econovation 3rd Fair)'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9월말까지 홈페이지(www.econovation.co.kr)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해 36개 팀의 우수 애플리케이션에 시상한다.

대학생과 예비 창업자, 기존 앱개발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발된 팀들에게는 상금 2억원과 글로벌 사업화 비용 3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11월 중 열리는 한·중·일 공동 앱 경진대회(OASIS Global App Award)의 국내 공모전 성격으로 개최된다. KT는 중국 청이나 모바일, 일본 NTT도코모와 함께 자국 내 공모전을 실시해 우수앱을 선발한 뒤 시상식과 함께 각국의 당선작들의 시연회를 여는 방식으로 공동 앱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북한은 지금 디지털 혁명 중”

첨단시설 갖추고 젊은이들 컴퓨터는 기본

북한이 현재 조용한 디지털 혁명과 정을 겪는 가운데 컴퓨터를 잘 다루는 젊은이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AP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또 북한은 자체 컴퓨터 운영프로그램과 수치제어 시스템을 개발해 선전하고 공식 포털사이트와 트위터를 개설하는가 하면 김일성 종합대학과 평양 인민대학습당 등 각급 교육시설에는 첨단 IT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인터넷 접속은 아직 제한적이며 북한의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체 사이트에만 접속이 가능한 상황이다.

통신은 평양에 종합지국 개설을 계기로 내보낸 북한 특집기사 시리즈의 2번째로 이날 북한의 IT 발전상을 이같이 전했다.

김일성 종합대학의 물리학도인 김남일(21)군은 오른손에 마우스를 붙잡고 김정일 장군이 선물했다는 스티커가

붙은 평면 모니터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김군은 전세계 다른 젊은이들처럼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배우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AP 취재진에게 말했다.

통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해 선전하고 공식 포털사이트와 트위터를 개설하는가 하면 김일성 종합대학과 평양 인민대학습당 등 각급 교육시설에는 첨단 IT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인터넷 접속은 아직 제한적이며 북한의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체 사이트에만 접속이 가능한 상황이다.

취재진이 방문한 평양의 3개 혁명기념관에는 CNC로 만든 제품들이 전시되고 있었고 만경대 학생소년궁에서 만난 어린이들은 컴퓨터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었다. 또 평양인민대학습당에서도 타자 연습을 하는 학생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신조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취재진이 방문한 평양의 3개 혁명기념관에는 CNC로 만든 제품들이 전시되고 있었고 만경대 학생소년궁에서 만난 어린이들은 컴퓨터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었다. 또 평양인민대학습당에서도 타자 연습을 하는 학생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신조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해 선전하고 공식 포털사이트와 트위터를 개설하는가 하면 김일성 종합대학과 평양 인민대학습당 등 각급 교육시설에는 첨단 IT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인터넷 접속은 아직 제한적이며 북한의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체 사이트에만 접속이 가능한 상황이다.

취재진이 방문한 평양의 3개 혁명기념관에는 CNC로 만든 제품들이 전시되고 있었고 만경대 학생소년궁에서 만난 어린이들은 컴퓨터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었다. 또 평양인민대학습당에서도 타자 연습을 하는 학생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신조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